

詩 論

# 강상(綱常)을 바로잡아

## 예의동방(禮儀東邦)의 명예를 되찾자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이 지구상에서 한 왕조가 오백년씩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예는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는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다. 만일 그러한 예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서 찾아야만 한다. 한반도에서는 조선조뿐만 아니라 한 왕조가 들어오면 오백년 천년씩 지속되는 예가 허다하다. 신라 1000년, 고려 475년, 조선 518년, 2000년 동안 우리 한반도에서는 세 왕조만이 바뀌었다. 세 왕조도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연속성(歷史的連續性)이었다. 같은 2000년간 한(漢) 민족이 사는 중국대륙에서는 17번의 왕조가 바뀌었다. 같은 한(漢)민족의 왕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이민족(몽고족, 만주족)의 침략을 380년이나 받았다.

20세기의 제일가는 역사학자라고 지칭되는 영국의 토인비(Toynbee, 1889~1975) 교수는 한국의 역사를 보고 동방의 "미스테리"라고 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조선 민족은 무능한 왕실에 불만을 느껴도 혁명을 일으켜 그것을 뒤엎을 만한 기상이 없는 무기력한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종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선경국전을 보고 깜짝 놀랐다. 14세기말 이 지구상에서 과연 어떤 나라 어떤 전제군주국이 이렇게 거룩한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등장한 예가 있는가?

조선경국전에서는 건국이념과 통치철학을 극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는 삼봉 정도전(1342~1398)이 찬찬한 것이다. 조선경국전에서 군주론(君主論)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인군의 지위라는 것은 높기로 말하면 한 없이 높은 것이요, 귀하게 말하면 한 없이 귀한 것이다. 그러나 하늘 아래는 넓기 이를 데 없고 백성은 많기 그지없다. 단 한 번이라도 그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참으로 크게 격정할 만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아래에 있는 못 백성은 지극히 약하게 보이지만 힘으로 겁줄 수 없는 것이요, 지극히 어리석게 보이지만 지혜로써 속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들은 복종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곧 이반 해버린다. 떠나고 붙는 것이 티끌만큼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즉 인군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고 인군의 하늘인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인군은 대통령으로 바뀌 놓기만 하면 현재 민주국에 그대도 이용해도 아무런 손익이 없는 체제요 진리이다.

14세기말 조선왕조는 이러한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다. 토인비가 놀란 당연한 일이다.

서양의 유명한 정치학자라고 지칭하는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Machiavelli 1469~1527)는 군주론에서 정치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를 써야 한다. 권모술수를 쓰지 않는 군주가 있다면 반드시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양에서는 이 군주론을 명문이라고 하여 르네상스시대에 각광을 받았다. 우리 정도전이 주

창한 군주론과, 마키아벨리가 주창한 군주론을 비교하여 보라. 토인비가 감탄을 금치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지구상에서 조선왕조 같은 경국전을 갖고 출발한 나라는 조선왕조 밖에 없었다. 그리하기 시작이 5000년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군주론 뿐이 아니다.

조선조 오백년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경국전을 살펴보면 경단을 금지 못하게 된다.

조선경국전은 성리학의 근본인 인의예지신, 오상을 핵심으로 하여 건국이념과 통치철학으로 삼은 것이다. 이 이념과 철학이 실증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의 문화유산에 아직도 남아 있다. 이태조가 오늘의 서울 한양을 도읍지로 하고 경복궁을 짓고 4대문을 낼 때 속칭 동대문을 흥인지문, 서대문을 돈의문, 남대문을 송례문, 북대문을 흥인지문이라 하였다.

사람의 대문이 흥인, 돈의, 송례, 흥인지라는 송고한 의미가 담긴 이름을 갖고 있으며 종로 한쪽에 보신각을 세우고 여기에 종을 매달았다. 성리학의 핵심인 인의예지신 오상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4대문 외의 작은문은 광화문, 해화문, 문화문, 흥화문, 선화문 등이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화(化)라는 글자를 품고 있는데 이는 교화민속 한다는 뜻을 품고 있다. 참으로 차원 높은 개국의 번이 아닐 수 없다. 한방이 되어 4대문을 달는 번이 종을 28번 쳤다. 28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별자리 28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새벽이 되어 4대문을 여는 파루는 33번을 쳤다. 33번은 어디서 나왔는가, 동양의 고대의 우주관을 반영하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8계층의 하늘이 있고 그 가운데 이 모두를 지휘하는 견선성(見善城)이 있다고 보았다. 이 모두를 합치면 33이 된다. 33은 우주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기미년의 민족대표 33인이 된 것도 물론 우연이 아니다.

그러면 종이 33번 울릴때의 의미를 정리해보자. 신생국가인 조선은 무력이 아닌 인의예지신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교화할 것임을 33번, 곧 우주전체에 맹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치자의 의지가 종이 울릴 때마다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조선조가 오백년이 나 사지가 유지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바로 이러한 도덕적 정당성과 윤리적 합리성 위에서 출발하였고 그 이념과 철학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종직, 조광조, 이항, 조식, 이이, 김장생, 이언적, 김인후, 서경덕, 성혼, 이제, 허목, 송시열, 정약용 같은 대학자가 배출되었고 사육신, 생육신, 삼학사 같은 열사, 이순신 같은 위대한 인물, 한말에 이항로, 김평묵, 최익현, 유인석 같은 우국지사가 수 없이 배출되어 찬란한 문화와 선비정신을 꽃 피웠고 황희, 맹사성, 유관, 박순, 유성룡, 이항복, 이덕형, 정철, 이원익, 이준경, 이경여, 김상헌, 김육, 이정구, 이경석, 최명길, 이유, 남구만, 채제공 같은 명재상과 첨배리가 무수히 배출되어 문화민족으로 빛나는 역사를 창조하였다.

이 문화민족 예의동방에 강상(綱常)이 무너지고 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얼마전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아태지역 사무소가 아시아 17개국의 9세~17세 청소년 1만 명을 1대 1 면접으로 어른을 존경하는가의 물음에 대하여 매우 존경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개국 평균이 7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3%이다. 가장 높게 나온 나라는 베트남으로 92%,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홍콩조차도 38%이었다.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무색하다. 신뢰도가 98.8%라 한다.

어른을 존경하지 않는데서만 그치지 않는다. 권위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는 응답율에서도 평균 53%인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5%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홍콩 28%에도 훨씬 못 미친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부끄럽고 슬프고 충격적인 사실임에 틀림없다. 이는 우리사회 전체가 과거와 미래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고 정신없이 성장만을 향해 달려온 결과가 기성세대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 버린 것이 지금 우리 청소년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 경제포럼에서 104개국중 우리나라 정치 신뢰도가 85위, 노사 협력관계가 92위로 발표되었다.

바르지 못한 고위공직자들의 행동, 주민들의 대포로 인한 그릇된 정치인들의 바르지 못한 행동,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해바라기 정치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막가파 들의 행동,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4,000불에 이른 것은 오늘날 70대의 노인들이 공산침략을 막아 국권을 수호하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젊은 층이 노인들을 후대정치는 행위, 인간의 기본질서인 오륜이 무너지고 사회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고도로 발달하고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덕성 가치 기준은 정비해여 높아지는 것이다. 국민소득 3만불을 이룬 선진국들이 인간으로서의 윤리 기준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거대한 로마제국이 망한 것은 군대가 약해져서 망한 것이 아니고 나라가 빈곤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도덕성이 무너지고 사회기강이 바로서지 못하고 부정부패로 인해 망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그 자식을 포한 감옥에 가고 부모를 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고 돈이 생긴다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막가파 들의 행동, 이 같은 사회현상이 참으로 가슴 아프다.

조선조 500년 동안 우리 선비들은 예가 아니면 보지도 않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않고 예가 아니면 억만금을 주더라도 행동하지 않았다. 군왕도 예가 못하면 반정의 대상이 되었다. 정치하는 사람은 의(義)를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삼았다. 군왕도 재왕학을 닦기 위하여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자로부터 경연을 통하여 강을 받았다.

정치가 바로서는 사회, 막가파 인생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어 사람으로서의 강상을 바로 세워 예의동방의 명예를 되찾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 특별기획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① 문제의提起

#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최근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간의 치열한 공방속에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본지는 일선 한 경찰관이 연구한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논문을 통해 수사권의 정의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수사제도, 경찰수사권의 독립 등에 관한 내용을 지면에 게재하여 독자들의 알권리보호 차원에서 연재한다. 연재되는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하며, 경찰측의 요청에 의하여 게재됨을 밝히며 아울러 향후 검찰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측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함께 게재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노영민  
포천경찰서

우리나라에서 1991년 地方自治를 실시한 이래 현재는 어느 정도 自治制度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地方自治란 國際化·地方化·高度의 産業化·情報化 추세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이에 대응하여 막중한 임무를 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국내의 정세를 예견하여 경찰의 조직과 기능을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방자치기 실시되면서부터 제기된 경찰의 관료주의화, 주민 요구에의 부적응, 경찰불신의 확대 등 그 동안 國家警察制度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치안환경·국민생활의 변화는 경찰제도의 개편논의를 촉발시켰고, 특히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증대로 인하여 자치경찰제의 도입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自治警察制度는 市·道知事에게 地方警察를 맡겨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행정의 임무를 관해서도 차기 선거 때 주민의 심판대상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필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하여 민주주의의 이념을 더욱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 하겠다. 이러한 自治警察制度가 도입되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警察制度는 危險의 發生을 豫防하거나 이미 발생한 犯罪의 제거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경찰은 어떠한 국가에서도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국가기능의 하나로서 작용하고 있다.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욕구가 치료로서의 안정, 즉 사회질서 확립의 보장장치는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제1선의 기능을 경찰에게 담당시키고

있는 것이 현대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국가와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 왔다. 오늘날에는 國際化·地方化·高度의 産業化·情報化 추세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이에 대응하여 막중한 임무를 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국내의 정세를 예견하여 경찰의 조직과 기능을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경찰은 사실상 직접 수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는 검사의 수사보조자로서의 지위가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도 현실에 맞게 개선되지 못해 경찰관이 지금처럼 검사의 수사보조자로 남아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검사로부터도 계속 지휘를 받게 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국 당시 刑罰訴訟法 전반에 日本과 마찬가지로 미국식 형사소송법체계를 대폭 도입하였다. 그러나 수사구조만은 대륙법계의 구일분형사소송법을 계승하여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통하여 수사권을 독점하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보조자의 지위에 지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美軍政 때에는 搜查節次의 民主化 등을 비롯한 美歐式 刑罰訴訟法制度의 도입을 목표로 검사의 기능을 공소유지의 역할 수행에 제한하려 하였으나, 검찰의 반대와 검찰출신 인사 등 종래 직업법률가의 주도로 구 검찰제도를 유지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 때에는 검사만이 판사에 대하여 영장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국가 중 유일하게 헌법사항으로 규정하여 검

사의 수사권을 더 강화하였다.

한편 刑罰訴訟法 제정 당시 국회에서는 英·美의 搜查制度를 받아들여 수사는 경찰관이 하고, 기소는 검찰관이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으나, 당시 압법과 정에서는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는 것보다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이로울 것이며,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 제도 아래에서 경찰에 독자 수사권까지 부여하면 경찰의 파소(fascio)화의 우려가 검찰파소화의 폐해보다 클 것이 우려된다. 이는 이유로 舊日本刑罰訴訟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정 당시 국회에서는 검찰에 단체장 뿐만 아니라 검사로부터도 계속 지휘를 받게 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지금은 地方自治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국 이래 警察權이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이른바 경찰파소화의 우려가 없어지게 된 이 시점에서 기존의 수사제도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수사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警察에 獨自의인 搜查權을 인정하고 있는 英·美·日과 같은 자치경찰선진국의 수사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취사선택함으로써 자치경찰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헌법의 수사제도를 지방자치의 이념에 맞게 개정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권독립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세계최고 건축물 테마파크 **아인스월드**

파리지앵 Festival 4/15~6/19

# 60일간의 프랑스여행

"아인스월드에 가면 당신이 파리지앵입니다!"

- 프랑스 문화에 빠져-봅시다**
  - 감미로운 선율의 밤
    - 원형악기 합주하는 노랑기레의 난방
  - 감미로운 프랑스 음식의 향연
    - 프랑스의 크레페의 멋진 맛
  - 재미있는 연극공연
    - 프랑스어로 하는 연극은 어떻게? 연극으로 배우세요!
- 여러날은 프랑스에서~**
  - 여인을 위한 인형극
    - 프랑스의 동서양
    - 인형극 관람을 통해 규칙적인 학습권을 깨달아요!
  - 환상의 불꽃놀이
    - 자녀의본보기 하나 되어즐거는 아름다운 추억
  - 피자 도우 Show!
    - 피자 민중을 이용한 재미있는 (Mr.Pizza) 드림쇼 공연
- 즐거움이 함께하는 아인스월드!**
  - 올리브 키예 미트로
    - 7월(미트) & 미트(올리브)
    - 살아 움직이는 환상 미트로
  - 한밤의 아인스월드
    - 노란기레의 즐거운 공연
    - 자녀의본보기 하나 되어즐거는 추억
  - 포토존 이벤트
    - 프랑스 특산악기(아코디언)와 함께 연주
    - 재미있는 프랑스 음식(크레페)과 함께
    - 세계 유명 건축물을 배경으로 국가별 캐릭터의 멋진 사진!
- 사진찍고-파티하자!**
  - 아인스월드의 즐거움 추억을 사진에 담아 직접 파티로 떠나는 **심나는 사진 콘테스트**
  - 1등 프랑스 7박8일 여행권!! (커피권) 디지털 카메라 무료임대권 등 (이벤트 내용도 홈페이지 참조)

“아인스월드에서 프랑스의 모든것을 만나보세요~이제 당신이 파리지앵입니다!”

후원: PARIS VISITE, KB, 카드, 비스타카드, Mr.Pizza

세계최고건축물 테마파크 아인스월드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 | 대표전화 032-320-6000 | www.aiinsworld.com | 인터넷 검색창에 아인스월드를 쳐주세요! 행운이 쏟아집니다!